

# “문화와 자연에 빠져 남도에 놀러 앉았죠”

광주 장동에 사진 갤러리 연 존 잭슨 前 조선대 교수

교수 정년퇴직후 구례 지리산 인근으로 이사  
한국생활 35년 틈틈히 찍은 사진 전시·판매  
갤러리 곧 옥과로 이전...27일 특별할인 행사



지난달 중순 광주시 동구 장동 옛 광주여고등학교 담벼락에 따라 걸다보면 '파더 이스트 갤러리(Farther East Gallery)'라는 조그만 갤러리가 나온다.



▲존 잭슨 전 조선대 교수가 남도의 아름다운 담은 사진 작품들.

광주시 동구 장동 옛 광주여고등학교 담벼락에 따라 걸다보면 '파더 이스트 갤러리(Farther East Gallery)'라는 조그만 갤러리가 나온다.

호기심에 다가가기 안에서 인상 좋게 생긴 외국인 할아버지가 나온다.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재미있는 사진 많아요.”  
유창한 한국말로 초대하는 이 할아버지는 지난달 사진갤러리를 개관한 존 잭슨(69·John Jackson)씨이다. 잭슨씨는 35년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땅을 밟았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그는 공주사범대에서 근무했다. 지난 1993년부터는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2012년 정년 퇴임했다.

“원래 이곳은 8년 전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 위해 얻은 공간이었어요. 소파, 나무난로, TV 등을 놓고 술도 마시고 음악도 들었죠. 그러다 조선대를 퇴직하며 구례 지리산 인근으로 이사를 하면서 비워 뒀어요. 예전부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 사진들을 전시할 공간으로 만들기 결정하고 11월 중순 열었죠.”

‘Farther East’(조금 더 동쪽)라는 이름은 인도 타고르의 시에서 따왔다. 근대화, 산업화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지만 어딘가에는 자신의 작품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전시 주제는 ‘선비의 정신’이다. 퇴계나 율곡 같은 선비들은 자연을 먼저 생각했고 이를 이어받아야한다는 생각에서 정했다.

갤러리 안에 들어서자 10평 남짓한 공간에 약 100여점의 사진이 걸려있다. 주로 자연을 찍은 사진이다. 눈 쌓인 대나무, 까치밥이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감나무, 모내기하는 나무에 앉아있는 왜가리 등이다. 지난 광주U대회 때 ‘2015 하계 U대회 영공의 순간 사진·영상콘테스트’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순연재 사진도 보인다.

약 100×50cm의 큰 액자는 12만원, 50×50cm는 5만원, 10×15cm는 2만원, 액자 없는 사진은 4000원(3장 1만원)이라는 가격표도 곳곳에 붙여져있다. 판매수익금은 모두 지역 고아원 크리스마스선물을 사는데 쓰인다는 문구도 눈에 띈다.

잭슨씨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다보니 커피 한잔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팔고 있다”며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없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잭슨씨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펜타스 카메라(pentax)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수십년 동안 틈나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닌다. 그는 버드나무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기자와 만난 전날에도 눈이 내리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다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도 꽤 있다. 지난 2008년 보해양조가 주최한 ‘제7회 보해 매화사진 콘테스트’에서는 작품 ‘매화’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일보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고 김중태 전 회장과 우연히 만나 그는 김 회장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우정을 쌓은 추억이 있었다.

그는 최근 건물주가 건물을 파는 바람에 한달만에 갤러리를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옥과에서 비어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구했다고 한다. 잠시 미국집에 갔다가 내년 가을쯤 갤러리를 다시 열 계획이다. 갤러리를 비워줘야하는 27일에는 작품들을 특별할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나는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갤러리를 옮겨야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 좋은 장소를 찾는 것처럼 우연히 들른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과 문화를 만났어요. 좋은 풍경과 좋은 사진이 기다리고 있으니 옥과에 갤러리를 열면 많이 찾아주세요.”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태극기, 예술이 되다

광복 70주년 미술축전...30일까지 서울 동대문플라자



‘광복 70년 미술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광주 출신 이권훈의 ‘태극기 1’.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술축제가 펼쳐진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광복 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태극기와 나’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태극기의 가치와 정신을 표현한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황영성(사진) 화백은 ‘광복70년 대한민국미술축전 운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총괄했고 손승혜 총감독은 기획을 담당했다. 황 위원장은 지역작가로서 정부가 개최하는 대규모 미술행사를 도맡아 주목받았다.

전시회는 공모수상작 구역과 초대작가 구역, 관람객을 위한 휴식·놀이공간으로 구성됐다. 공모 수상작 구역에서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뽑힌 김준수·김정필·천진우의 ‘광복, 빛을 되찾다’를 선보인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이권훈 작가의 ‘태극기 1’도 출품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정룡 호남대 예술대학 학장 등이 참여했다.

초대작가 구역에서는 우제길 화백의 ‘내 가슴의 태극기’, 허달재 선생의 ‘매화 속에 핀 태극기’, 이이남 작가의 ‘그리스도는 왜 TV를 켰



어졌는가?’ 등을 만날 수 있다. 구당 여원구, 조정 권창륜, 정종미, 이종구, 이관섭, 유의정, 이재혁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신진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초대작가들은 행자부가 최근

전국의 한지 장인들과 함께 조선의 고지 용지에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한지로 태극기에 담긴 철학적 가치와 정신을 다양하게 해석했다.

태극기를 설치미술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태극 놀이터’는 관람객 휴식·놀이 공간으로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황영성 운영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태극기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철학·인문학적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예술적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꾸준히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담양 송순 문학상 대상에 문순태 ‘소쇄원에서...’

담양군이 제정한 제3회 송순 문학상 대상에 문순태(사진) 작가의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가 선정됐다. 상금 2000만원.

송순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열어 조선 중종 때 문인 양산보(1503~1557)와 그의 별서정원(別墅庭園) 소쇄원을 조명한 문작가의 소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설은 정치적 야망이 컸던 한 젊은이가 스승을 잃은 후 자연 속에서 이상세계를 일구며 사는 방식에 주목한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은둔의 방편으로 찾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

담양 출신 문 작가는 1975년 소설 ‘백제의 미소’로 등단한 뒤 ‘징소리’, ‘철쭉제’ 등의 작



품집과 대화소설 ‘타오르는 강’을 펴냈다.

우수상은 안수자 작가의 동화 ‘모해를 찾아라’, 김규성 시인의 ‘신이 놓친 악보’에 돌아갔다.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안 작가는 지역 문화 유산을 동화 속에 잘 풀어냈으며,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김 시인은 투명한 감성을 작품에 녹여냈다.

시상식은 23일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송순 음악회와 함께 열린다. 문의 061-380-311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